

학교텃밭의 의의와 활성화 방안

민동욱

(서울 도시농업네트워크 운영위원장)

최근 도시농업에 대한 국민적관심과 사회적 논의가 시작되면서 학교에 텃밭을 조성한 다양한 활용에 대해 논의되고 있다.

1. 학교텃밭의 가치

1) 도시녹지화 실현

급속한 도시화에 따른 교육환경 악화, 지가 상승으로 인한 생활권 녹지공간 확보 한계, 학생과 지역주민을 위한 휴게·운동공간 부족, 학교와 지역사회 간의 유기적 소통장소로서 학교라는 공간을 활용, 텃밭을 조성하여 도시녹지화를 높여낼 수 있다. 이는 가속화되는 환경오염과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작은 실천으로 기능 할 수 있다.

2) 농사를 통한 생명과 농업을 체험

학교텃밭은 자연의 섭리와 신비로운 현상들을 관찰할 기회를 제공하고, 작물 재배를 통한 모험과 도전의 기회를 주며, 새로운 사실들을 발견하면서 호기심을 충족하는 시간을 마련해 준다. 학교텃밭 경작에서 아이들은 새, 나비, 잠자리, 개구리, 개미, 지렁이 등 동물뿐 아니라 채소, 과일, 야생초, 풀, 나무 등 식물의 세계를 재발견하고, 생명에 대해 배우고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경험을 하게 된다. 학교텃밭은 아이들로 하여금 자연을 경험하면서 자연에서 배우고, 다른 사람과 함께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와 농업에 대한 소중함을 깨닫게 한다.

3) 자연과 어우러지는 교육의 기회제공

학교 텃밭은 흙을 만지고, 생명을 키우는 활동을 통해 생태감수성의 발달, 환경과 건강을 생각하는 건강한 식생활 교육, 자급적인 삶의 소중함과 나눔의 즐거움을 일깨우는 창의적 체험활동을 제공한다.

4) 건강한 문화와 식생활개선

어린이들은 학원에 가거나 컴퓨터 게임을 하거나 만화를 보느라고 바빠, 친구와의 대화는 물론이고 가족과의 대화도 거의 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학교텃밭은 함께 노동하고, 나누는 경작활동으로 공동체성을 높여 새로운 여가문화를 형성할 수 있다. 또한 직접 경작한 채소를 섭취함으로써 채소섭취를 높이고, 식습관을 개선할 수 있다.

5) 지역과 함께하는 소통의 공간

학교텃밭은 학교, 가정, 사회에서 어린이의 삶의 질을 높이는 좋은 수단이다. 학교텃밭은 어린이가 맛있는 채소와 과일을 키우고 수확하며, 다양한 향기와 색깔의 꽃을 기르는 곳이며서 놀고, 쉬고, 만나고, 서로 돕는 장소이기도 하다.

학교텃밭에 학부모나 인근주민이 같이 참여할 수 있다면, 할머니와 할아버지를 포함한 동네주민과 어린이들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좋은 의사소통의 장 역할을 한다. 일하면서 서로 대화하고 정보를 나누는 학교텃밭은, 세대간 의사소통의 장 역할을 한다.

2. 학교텃밭 프로그램 방향과 현황

1) 학교텃밭 방향

(1) 자연순환 원리로 짓는 농사

농약이나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텃밭과 주변에 다양한 소재를 활용한 유기순환의 원리로 농사를 지어 자연과 환경에 대한 이해를 높여낸다.

(2) 지속적인(일년) 프로그램으로 진행

씨뿌리기 - 가꾸기 - 수확하기 - 먹기로 이어지는 계절의 변화와 작물의 성장과 돌봄으로 작물의 생명주기에 맞춘 자연의 흐름을 체험하게 한다.

(3) 두레와 협동심 고취

소외되지 않고, 모두가 함께 땀흘리는 노동으로 함께 일하는 즐거움을 깨닫고, 이를 통해 공동체성을 향상시킨다.

2) 학교텃밭 현황

서울시 광노현교육감은 급식교육과 연계하여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학교텃밭을 조성하겠다고 천명하였다. 현재 서울시 1600여개 초등학교중 텃밭이 조성되어 있는 학교는 90여개 학교이다. 그러나 학교텃밭이 있다고 하여 텃밭을 통한 교육이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은 아이들의 관찰용으로만 그 활용이 제한되어 있다.

올해 성북구 급식지원센터가 관내 초등학교에 학교텃밭을 조성하여 교육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나 아직 시범운영이어서 구체적인 전망과 계획을 세우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3) 학교텃밭 수업사례

차시	주제	내 용	비고
1	텃밭농사와 밭 만들기	농사의 의미, 밭 만들기, 씨뿌리기	
2	작물 재배력과 모종심기	작물별재배력과 고추,토마토,가지등 모종심기	
3	작물의 성장과 환경	자원순환과 자가퇴비 만드는 방법	
4	텃밭작물재배법	작물별 재배법 /지주세우기, 웃거름 주기	
5	텃밭의 친구 지렁이	지렁이를 활용한 음식물 퇴비화에 대한 이해	
6	텃밭 병충해 예방	벌레와 잡초 / 김매기	
7	김장채소와 밭 만들기	김장작물 재배법과 김장밭 만들기 배추모종심기	
8	난각칼슘만들기	난각칼슘 만들기, 자연농약만들기	
9	텃밭의 곤충 - 배추벌레	텃밭 곤충의 생태관찰 및 배추잡기	
10	작물재배법-고구마 수확	땅콩, 고구마 수확	
11	배추의 특성	배추의 특성, 배추 묶어주기, 고구마 삶아먹기	
12	김장작물 거두기	배추 수확 및 김장하기	
13	농촌체험활동	농가방문 및 두부만들기 체험	

3. 학교텃밭 수업의 성과와 한계

1) 텃밭 조성을 통한 교육공간확보

텃밭공간이 없는 경우 상자(주머니)등을 활용한 텃밭공간을 조성하는 등 학교내 텃밭공간을 조성하여 생태체험 및 교육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다.

2) 채소에 대한 인식전환

학교급식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건강한 식단으로 만들어지는 채소반찬이 아이들로부터 외면받아 음식쓰레기가 되는 경우가 많다. 텃밭수업을 통해 채소를 직접 재배해본 아이들은 싫어하던 채소에 대한 호감이 갖게 되었다.

3) 생태환경적인 생활의 변화

음식물쓰레기를 활용한 지렁이를 키우며, 음식물쓰레기를 만들지 않는 올바른 식습관과 자원의 재활용을 통한 친환경적인 생활을 배우게 되었다. 또한, 유기순환하는 친환경농법으로 자연에 대한 이해와 자원을 순환하는 삶을 체험하게 되었다.

4) 건강한 몸과 인간관계 형성

물을 뿌리고, 땅을 파고, 물건을 나르고, 연장을 사용하는 다양한 텃밭재배활동을 통하여

균형 있게 몸을 만들고, 서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친화력이 생겨 인간관계 형성에 도움이 되었다.

5) 정서 심리적 안정과 감수성발달

흙냄새를 맡고 흙을 만지면서 흙을 더욱 가까이 접하게 되어 흙의 소중함을 느끼고 자연을 오감으로 느끼며 자연의 순환적 원리를 깨달아가게 된다. 채소재배를 통해 계절과 날씨의 변화, 식물의 성장, 수확에 대한 기쁨, 자연과 함께 하는 삶을 이해하고 노동의 신성함과 보람을 몸과 가슴으로 느끼게 한다. 자연과 함께하는 활동으로 생태감수성을 함양하고 정서심리적 활동으로 인성교육의 좋은 성과를 만들어 낸다.

4. 학교텃밭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

1) 학교내 텃밭조성에 대한 적극성

학교내 텃밭 공간을 새롭게 만들기 위한 적극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학교내 텃밭조성 공간을 만들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상자등을 활용하기 보다는 학교옥상이나 화단을 텃밭으로 조성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인 사고가 필요하다.

2) 학교텃밭 수업의 지속성

학교텃밭을 수업과 연계한 연중프로그램으로 진행해야 한다. 또한, 정규수업과정으로 텃밭 수업을 진행 하는 것이 중요하다. 시작을 시범사업이나 방과 후 교실 방식으로 진행할 수는 있지만, 빠른 기간안에 정규수업화 하는 것이 중요하고, 참가 학생들이 지속적이고 규칙적인 참여속에 진행하여야 한다.

3) 학교내 텃밭 관리

학교텃밭을 활용한 텃밭수업으로 텃밭이 조성되면 이에 대한 관리를 학교에서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은데, 학교텃밭을 일상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기 위한 관리가 필요하다. 학교의 인력의 어려워 일상적인 관리가 안되는 경우 학부모들과 함께 텃밭을 관리, 운영할 필요가 있다. 학부모들이 텃밭수업을 통해 아이들과 소통하고, 재배되는 채소와 수확물로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문제로 학부모들의 인식과 활동을 확장할 수 있다.

4) 텃밭 수업과 연계한 교육

학교텃밭은 농사와 자연에 대한 교육을 중심으로 이루어지지만 이와 연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한다. 먹거리와 식습관에 대한 교육(식생활교육지원법)과 연계하여 수업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5) 학교텃밭 수업을 통한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와 소통

텃밭의 수업내용은 농사를 배우고 체험한다는 부분에서 학교교사들의 역할이 축소 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텃밭수업을 농사로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식습관, 먹거리 교육등으로 확장한다면 교사와 함께 수업과정에 대한 토론과 준비가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학부모들이 학교텃밭에 대한 일상적관리와 함께 수업과정의 보조강사로서 아이들 교육의 한 영역을 담당하여야 한다. 장기적으로 학부모들이 학교텃밭을 활용한 텃밭수업을 진행하는 것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6) 농민, 농촌, 농업과 연계

학교텃밭을 조성하였다고 해도 농촌과 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데 한계가 있다. 학교텃밭은 농촌체험등과 함께 병행하여 농촌, 농민에 대한 이해를 높여, 안전한 먹을거리에 대한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농촌의 소중함과 가치를 인식할 때 만이 학교텃밭이 올바르게 정착할 수 있다.

7) 교육청, 지자체의 역할

교육청과 지자체는 지역시민사회단체와 함께 학교텃밭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이런 지원이 지역시민단체와 반드시 되어야 하는 것은 학교텃밭이 갖는 다양한 이유 때문이다. 학교텃밭조성을 보면 텃밭 조성은 지자체 공원녹지과가 담당하게 되고, 교육사업은 교육청에서 담당한다. 또 학부모와 지역주민들과 함께 학교텃밭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생활경제과, 지역사회과등이 담당한다. 이 경우 지자체와 교육청의 지원이 한쪽에 편중되거나 어느 한쪽을 소홀히 할 수 있기 때문에 학교텃밭에 대한 지원이 통합적이어야 한다. 따라서 거시적인 시각과 계획으로 일관되게 지원, 육성되기 위해서는 시민사회와 공동으로 통합지원에 대해 논의, 추진하여야 한다.